



마음찾는 여행권



얼마 전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발굴조사를 2시간 여에 걸쳐 텔레비전을 통해 생중계를 실시하였다. 지구촌의 눈길을 모았던 이 야심찬 생중계는 파라미트를 조사하는 로봇이 예상치 않게 나타난 내부벽에 부딪쳐 더 나아가지 못했다. 고대 문화의 신비를 풀지 못하고 싱겁게 끝나버린 것이다.

이집트의 <사자의 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죽은 자는 오시리스의 재판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한 다음, 심장의 무게 달기 의식을 치러야 한다. 저울 한 쪽에 올려놓은 심장은 깃털(신화와 정의의 여신인 마야트의 상징)처럼 가벼워야 한다. 만약 심장이 무겁거나 죽은 사람의 악행이 선량보다 많으면 옆에서 입을 벌리고 있던 사람잡아 먹는 여신 아미트가 죽은 자를 씹어 영원한 제2의 죽음으로 밀어 넣는다.

우리나라 불화 가운데 지옥도를 보면 업경대와 업저울이 등장한다. 업경대에는 자신이 생전에 지은 행위가 낱알이 비취지고 업 저울은 선업과 악업을 엄격하게 저울질한다. 이와 같이 문화는 지역을 넘어 공통성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물리적인 우주 공간에서 지옥과 극락이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은 진부하다. 그러나 당위론적으로 지옥과 극락은 존재해야 한다고 믿는다. 사성(四聖)은 윤회를 벗어나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지만 육박(六凡)의 존재는 윤회의 고리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상의 무덤을 좋은 곳에 마련하여 그 음력으로 대권을 장악하려는 사람이 21세기 우리 땅에는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중세시대 면죄부를 사고 판 일도 있지만, 영원한 여행에서 극락을 찾아가는 가장 보배로운 여행권은 권력이나 금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승에서 맘 풀리며 가꾸어 자신의 삶으로 살아야 하는 티켓이다.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 모르는' 우리들, 언젠가는 영원으로의 여행을 떠나야 한다. 이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 가을, 가을길을 하면서 영원으로의 여행을 위해 미미리 준비를 해야 하리라.

이기선 (조계종 성보문화재 위원)

미국 국방부는 올해 미국대학의 나노기술 연구소를 지원하면서 '전투병력 나노기술 연구소'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이 연구소에서는 나노기술을 전

의 물질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는 원자 서너 개를 합한 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크기가 되면 전혀 새로운 물리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대단히 유용한 소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예로 탄소나노화합물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는 전극간의 거리가 약 1nm이고, 한 개의 전자로서 구동되는 것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트랜

지스터로 이미 개발되었다. 이를 사용하면 정해진 공간에 많은 회로를 집어 넣을 수 있는 나노 소자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집적 회로는 컴퓨터의 연산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나노기술은 소재 개발 뿐 아니라 원자 분자의 위치를 대단히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원자에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게 하여 정보 저장 기술에

생활 환경은 크게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아주 작은 세계에서 나온다는 점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관찰할 때 그것을 밖에서 찾는 데에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도 제국주의 시대에는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지배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그러나 자연에 대해 알면 알수록 그렇게 밖에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

투자기 개발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게 된다. 나노기술로 개발된 재료는 머리 카락의 백 분의 일 정도 두께를 가지는데, 이를 다른 재료와 혼합해 쓰면 기

진정한 보배는 자기안에 있는데...

나노(nano)는 그리스어로 '난장이'를 의미하는 '나노(nanos)'의 줄임말이다. 현재는 도량형의 접두어로 사용한다. 백 분의 일이나 천 분의 일을 의미하는 센티나 밀리보다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할 때 쓰는 접두어가 마이크로(micro)나 나노인데, 마이크로는 백만 분의 일, 나노는 10억 분의 일을 가리킨다. 그래서 1nm(나노미터)는 10억 분의 일 미터이다. 나노과학은 1 내지 수십 nm 크기

의 물질들을 그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는 원자 서너 개를 합한 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크기가 되면 전혀 새로운 물리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를 적절히 이용하면 대단히 유용한 소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한 예로 탄소나노화합물을 이용한 트랜지스터는 전극간의 거리가 약 1nm이고, 한 개의 전자로서 구동되는 것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작은 트랜

지스터로 이미 개발되었다. 이를 사용하면 정해진 공간에 많은 회로를 집어 넣을 수 있는 나노 소자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고집적 회로는 컴퓨터의 연산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나노기술은 소재 개발 뿐 아니라 원자 분자의 위치를 대단히 정밀하게 제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기술은 하나의 원자에 1비트의 정보를 저장하게 하여 정보 저장 기술에

9월27일 조계종 법제위원회가 여섯 가지 색상의 휘장을 가사에 부착해 법계를 구분하자라는 내용을 확정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본지 389호 2·4면 기사 참조> 이에

열린마당

휘장패용 이렇게 본다

따라 법제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휘장패용에 대한 찬·반 이유를 철우스님과 효림스님을 통해 듣는다.

찬 성 철우스님(파계사 영산율원장)



결사의 현장이나 종단의 출범, 승승을 진작하는 개혁의 현장에는 언제나 승려의 의제 개선이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됐으며, 특히 법계에 따른 의제 시행은 옛날부터 내려온 한국불교의 전통이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승가교육과 법계제도, 의제가 불명명해 위계질서가 무너졌고 심각한 폐해가 야기됐다. 다행히 1995년 교육원이 별도로 독립하면서 교육체계가 잡히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법계제도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종단은 승가고시를 통과한 스님들에게 합당한 법계와 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구분하기 위한 표시로 휘장을 수여하도록 했다. 선사, 강사, 중회의원, 불교학자 등 200여명이 모였던 1972

의제 확립·타종단·무적승 구별효과

년 종단 중진회의에 결의된 주요 사항 중 하나도 의제 개혁이었으며, '모든 승려는 그의 법계에 따라 휘장을 패용한다'고 규정된 바 있다. 2000년 700여 스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0%가 법계에 따른 의제 시행에 찬성했다. 휘장 패용은 법계 구분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스님들로 하여금 교육과 수행에 더욱 매진하도록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무조건 무차별화'는 곤란하며, 이는 무질서와 혼란을 낳는다. 오히려 차별 속에 조화를 추구해야 하며, 거기에는 위와 질서가 요구된다. 조계종만의 법계 휘장은 이런 위와 질서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가사의 휘장을 통해 여타 종단과의 구별은 물론 무적승과도 구별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반 대 효림스님(실천승가회 부의장)

승가의 질서를 확립하고 위의를 바로잡겠다는 원칙에는 동의하나 휘장 패용에 대해서는 동감할 수 없다. 우선 법계조차 정착되지 않은 마당에 휘장 패용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조계종은 지난해야 비로소 법계법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3급 승가고시를 거친 스님들에게 중덕(비구·정덕(비구)) 법계를 수여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사실상 법계제도가 없었다. 이렇게 아직 법계제도가 시행된 지 1년에 불과한 시점에서 휘장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법계제도가 정착되고 나서 필요성이 느껴질 때 공의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법계제도 정착뒤 다른방식 휘장 논의

법계제도가 정착된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휘장 패용은 문제가 있다. 진정한 승가의 위의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고 아래에서 이를 본받을 때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다. 이런 본질을 외면한 채 제도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위험하다. 또 하나는 휘장 패용이 시대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는 서열과괴시대다. 그런 마당에 승가가 오히려 거꾸로 간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휘장을 패용한 스님들이 있을지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적어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에, 지금과 같은 계급장 형태가 아닌 다른 방식의 휘장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

불자의 생각

후원금

대부분의 불자들은 복지단체나 불교계 목 적사업 등에 대해 후원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7명이 동참한 붓다뉴스네터즌 설문조사결과, 연간 몇 회정도 후원금을 내느냐는 질문에 24명(42.1%)이 5회 이상, 17명(29.9%)이 1회, 7명(12.3%)이 각각 2회, 3회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내지않는다는 응답은 2명(3.5%)에 불과했다. 후원금을 내는 액수는 1만원 이상이 20명(35.1%)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과 5만원 이상도 각각 15명(26.3%)에 달했다. 또한 3만원 이상이 5명(8.8%), 2만원 이상이 2명이었다.

후원금 1년에 5회이상 42.1%

회, 3회 이상이라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내지않는다는 응답은 2명(3.5%)에 불과했다. 후원금을 내는 액수는 1만원 이상이 20명(35.1%)로 가장 많았고, 10만원 이상과 5만원 이상도 각각 15명(26.3%)에 달했다. 또한 3만원 이상이 5명(8.8%), 2만원 이상이 2명이었다.

국태민안 국민대화합을 위한

一心寺 山神石窟法堂 佛事案内

귀의상보하옵고

소남이 지난 7월25일, 남북이 하나로 이 땅 불국정토기원 일심사 아미타 좌불 봉안후, 월드컵 경기때 국민화합 하는가 했더니 요즘 와서는 국민들이 서로 싸우고 시끄러워 한반도 백두 대간의 정기를 다루시는 33山神을 봉안코저 산신 굴법당 佛事중이오니 참불자 인연 맺고저 합니다.

● 일 시 : 2002년 11월18일 오전 10시

연예인 초청공연 오후1시부터 4시까지

● 장 소 : 일심사(충남 당진군 면천면 문봉리 1구)

● 문 의 : 016-407-2549, 041-356-2549

일심사 주지 설 호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훈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지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